



이시우 박사가 쓰는 불교와 수족

천문학적 사고와 禪

우주 내 모든 개체의 탄생, 운행, 소멸의 이치를 찾아내고 이들의 과거와 미래의 진화를 예측하는 학문이 천문학이다. 이러한 학문의 연구 대상은 이상적 조건을 갖춘 닫힌진 실험실 내의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조건을 가진 열린진 실험실인 자연 그 자체가 천문학의 실험실이다. 그러므로 연구 대상은 시공적으로 제한이 없으며, 또 모든 사물은 원자라는 기본단위로 구성되었으므로 원자의 미시 세계에서부터 거대한 우주에 이르는 거시 세계를 넘나들면서 일어나는 순환적 사고가 필수적이다. 열린진 실험실인 자연에서 만유는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변화해 간다. 따라서 다양한 부분적 현상들을 전체적으로 종합·분석함으로써 전체의 유기적 진화 양상을 찾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전일적 사고가 요구된다. 이러한 사고 행위는 근본적으로 관측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관측에서는 항상 관측 대상에 관련된 객관적인 것과 관측자에 관련된 주관적 불확실성이 내포됨으로 관측 사실로부터 유추한 결론이나 모형설정에는 반드시 인식 한계를 결정짓는 불확실성이 내포된다. 그

러기에 오늘의 진리가 내일에는 거짓이 될 수 있는 것이 관측 행위의 특성이다. 인식의 한계성이고 또 자연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진리에 대한 관용이다. 위에서 살펴본 천문학적 사고방식

반적으로 직관이란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논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미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내장되어 있는 아뢰아식을 통해 전체를 꿰뚫어 보며 종합하고 판단하는 사고 행위이다. 여기서 직관이 마치 강을 배로 건너지 않고 이쪽 강둑에서 저쪽 강둑으로 훌쩍 날아가는 것처럼 비약적 사고 활동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물과 현상을 자세하게 분별하고 차별하는 구체적인 과정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질 뿐이지 결코 식별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즉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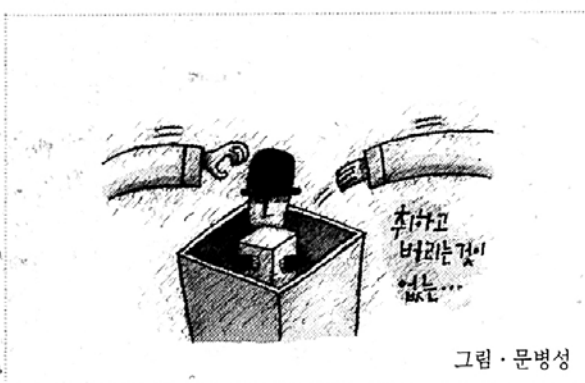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禪의 '직관' 우주 유기성 통찰

새로운 깨달음을 위해

끊임없이 수행하는 것이

자연서 살아가는 올바른 길

은 천문학뿐만 아니라 소위 열린 세계에서 살아가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며 인식하는 대상은 주로 자연적 상태에서 주변과 긴밀하게 연관된 상태에서 변화하며 또한 공간적으로 지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주적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이 우주의 만유에 관련된다면 이를 대상으로 하는 천문학의 사고방식도 불법과 다를 바 없다. 한 예로 불법의 수행에서 언급되는 선 수행의 방식이 천문학적 사고방식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보자. 흔히 선이란 사유방식을 세속제에서 승의제로 바꾸는 것으로 분별적 사유의 태도에서 순수하게 직관하는 태도로 바꾸는 것이라 한다. 일

별적 사유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대상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직관적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틀에 박힌 고정된 사고방식으로 부분적 현상에만 집착하는 세속적 사유과정을 벗어나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를 순환적으로 사유하며 전체를 깊고 넓게 조망하는 유기적인 전일적 사고가 곧 직관이다. 깨침에 이르는 승의제는 바로 이러한 순환적이고 전일적인 사유방

식의 터득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선이란 세속제에서 승의제로 들어가는 전의를 이루기 위한 단순한 실천적 수행이 아니라 자연의 사물과 현상에 대한 분별적이고 부분적인 사유체계로부터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사유체계를 통해 자연의 보편적 질서를 통찰할 수 있는 전일적, 사유능력을 배양하는 적극적 수행이 선일 것이다. 6식에 의한 인식과 부분, 부분과 전체를 순환적으로 사유하며 전체를 깊고 넓게 조망하는 유기적인 전일적 사고가 곧 직관이다. 깨침에 이르는 승의제는 바로 이러한 순환적이고 전일적인 사유방

구명할 때, 완전한 해답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발전적인 의문을 제시함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의 깨달음이 내일에는 거짓이 될 수 있고 새로운 깨달음에 이르는 끊임없는 수행이 변천하는 자연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올바른 삶의 길이지, 결코 어느 한 순간에 완전한 깨달음의 달성이 최종 목표가 될 수 없다. 깨달음이란 거대한 연기는 그물망에 걸려있는 만유의 존재양식과 진화를 이해할 때, 개체들에 관한 분별적 사유를 거친 후 전체와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성상융합(性相融合) 함으로써 상차상조를 이루어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에 이르러 선의 경지일 것이다. 큰 바위일수록 낮은 곳에 머무는 것처럼 선은 마음을 낮추는 것이며 도는 낮은 마음으로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다. 남악회양 선사는 '집착이 없고 취하고 버리는 것이 없는 것이 선이다' 라고 했다.

대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그대들은 조사·부처를 알고자 하는가? 바로 그대들 앞에서 법(法)을 듣는 것이 조사요 부처이다. 배우는 사람이 믿음이 부족하면 곧 밖으로 이리저리 찾지만, 실사 찾아서 얻는다 하더라도 이것들은 모두 문자의 뛰어난 모습일 뿐이니, 결국 저 살아있는 조사의 뜻을 얻지는 못한 것이다. 잘못 알지 말라. 여러분! 바로 지금 조사와 부처를 만나지 못한다면, 영원히 삼계를 윤회하며, 좋아하는 경계를 따라가서 당나귀나 소의 뱃속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도 배우는 이들이여! 나의 견처로 말하면 석가세존과 다르지 않다. 오늘 여러 가지 작용하는 곳에 무슨 모자람이 있는가? 여섯 가지 지각의 신령스런 빛이 끊어진 적이 없었다.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더 이상 할일이 없다.

나[我]란 무엇인가? 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나'라는 생각 혹은 느낌을 늘 가지고 있다. 즉 아상(我相)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막상 '나'가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 찾아

보면 쉽게 찾지지 않는다. 육체를 '나의 육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육체가 곧 '나'인 것은 아니고, 느낌도 '나의 느낌'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느낌이 곧 '나'인 것은 아니며, 생각도 '나의 생각'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생각이 곧 '나'인 것은 아니다. 사실 어디를 찾아보아도 '나의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있어도 바로 '나'라고 할 만한 '무엇'은 찾을 수가 없다. 즉 '나'는 없다. 그러므로 무아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없다'고 말하는 이

순간에도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이것은 일어나고 있다.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이것이 또한 '나는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한다. 생각과 말에서는 '있다'와 '없다'로 달라지지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순간도 빠짐없이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나의 모든 행위와 내가 살아 있음을 나타내는 모든 현상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난다. 그러므로 이것은 늘 이 순간 이런 느낌과 이런 행위

는 이것은 아무 차별 없이 동일하다. 이것이라고 말하지만, 생각하고 말하는 이것은 생각이니 말로서 파악하고 지시할 수 있는 무엇은 아니다. 이것은 생각이니 말로서는 어떤 방식으로도 파악되거나 표현될 수 있는

와 이런 생각을 통하여 드러난다. 그러나 이런 느낌과 이런 행위와 이런 생각이 곧 이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한다면 바로 어긋나 버린다.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곧 이것이지만, 생각과 말을 통하여 생각과 말 위에서 이것을 파악



임제록 통한 선 공부

지금 작용하고 있다

모든 것 인연따라 생기고 사라져

하거나 나타내려고 하면 곧 허구에 빠지기 때문이다. 즉 이것은 고정되거나 정해진 무엇이 아니다. 모든 무엇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므로 이것은 바로 생겨남 그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진리를 연기법이라고 말한다. 모든 생겨남은 인연에 따른 생겨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지금 이 순간의 생겨남이라는 활동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나 어떤 눈에 띄는 움직임을 곧 이것이라고 해서 안된다. 눈에 띄는 움직임을 인연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허망한 생멸법이다. 그러나 이것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생멸법과는 달리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다만, 육근이 작용해야 이것도 드러나 파악되므로, 이 불생불멸법은 인연에 따른 생멸법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멸법이 곧 불생불멸법이다. 동정(動靜)에 매이지 않는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의 존재이다.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http://www.mindfree.net/

이제 그만

“사회 공헌도·전문성 떨어져”

엘리트 그룹에 대한 평가 교수신문은 지난 15일자에 행정관료, 경영인, 언론인 등 사회 엘리트 그룹의 도덕성이 떨어졌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행정관료와 언론인 등 대국민 영향력이 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회적 공헌도와 전문성마저 여타 직업군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교수신문은 상대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사회 엘리트 그룹의 내부 점검적인 성격을 띤다는 점에 주목을 끈다. 행정관료와 언론인에 대한 교수신문의 평가는 그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만과 다르지 않았다. 우리는 행정관료, 경영인, 언론인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을 전문가, 사회 엘리트 또는 여론형성층이라 흔히 부른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며 특별대접을 하는 것은 그들의 전문적인 능력을 통해 사회를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도덕성, 사회적 공헌도,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그들에 대한 평가나 대접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나라의 중진이 직무를 태만히 하면서 사리만 생각하면 나라의 기강이 급속히 무너진다. 백성이 서로 속이고, 강자가 약자를 때리고, 귀족이 서민을 학대하고, 부자가 빈자를 착취해도 법의 제재가 없으면 도덕이 무너지고 혼란이 극에 달한다. 부정직한 공직자들은 백성의 복리를 흘려치는 도둑일 뿐, 임금과 백성을 속여 나라를 불행하게 하는 원흉이다. 그러므로 임금은 직무를 태만히 하는 그런 중진들을 가려내어 엄벌해야 한다. <대사차니건지소설경> 관리들은 고위직이나 하위직을 막론하고 모두 법에 따라 업무를 바르게 수행하고, 법을 어기기 쉬운 자들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법에 의한 보호, 법에 의한 처리, 법에 의해 인락을 주는 것, 법에 의해 언어와 행동을 삼가는 것이 이것이 관리가 준수해야 할 규칙이기 때문이다. <아육왕비유경>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독경 chant 운판 cloud gong 목어 wooden fish The day begins at 3 a.m. One monk rises a little earlier, washes, and puts on his ceremonial robes. Slowly, he circling the Pagoda and chanting as he goes. After a short time, the large bell, followed by the drum, cloud gong and wooden fish are sounded and all monk go to the Main hall for chanting. 하루는 새벽 3시에 시작한다. 한 스님이 조금 일찍 일어나 씻고 가사를 입는다. 목탁을 치며 탑 주변을 천천히 돌며 독경을 한다. 잠시 후 범종과 법고, 운판, 목어를 치면 모든 승려들이 예불을 위해 대웅전으로 간다. The large bell, followed by the drum, cloud gong and wooden fish represent a section of the world of living beings. The large bell calls those who have become decadent. The drum, made of an animal skin, calls the animals, and cloud gong calls the beings of the air. The log carved into the shape of a fish calls the all that live in water. 범종과 법고, 운판, 목어는 우주의 생물의 각 부분을 상징한다. 범종은 고통 받는 중생들을 깨운다.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법고는 동물들을 깨우고, 운판은 하늘의 모든 생물을 깨운다. 나무를 파서 만든 물고기가 모양의 목어는 물속에 사는 생물을 깨운다.

Advertisement for 'Hamakje Gashio-gapi' (Hamakje Gashio-gapi).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cactus-like plant and a portrait of Kang Hoon-gu. Text includes: '가시오가피 처음부터... 잘 먹고 먹자!',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 가시오가피', '100% 국내산 토종 가시오가피를 사용', '국내 최대 가시오가피 재배지 "함박재 농장"', 'KBS, MBC 뉴스 보도', '가시오가피와 오해도 많은 가시오가피 이제,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20년을 달려온 (주)한국자연과학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명중위기에 처한 가시오가피는 환경부 지정 야생보호식물입니다.', '전화상담 및 무료자료신청 TEL:(02)2272-4900'.

Advertisement for 'North Korean Gold Mountain Ginseng' (北韓의 세계적인 神秘의 명산품 국내시판 北韓 金剛嶺參). It features an image of a ginseng product box. Text includes: '北韓의 세계적인 神秘의 명산품 국내시판', '北韓 金剛嶺參',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된다는 神秘', '金剛嶺參의 神秘', '北韓의 세계적인 神秘의 명산품으로 서산대사의 고향이며 원효대사께서 잠선 안거하시던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생산되는 희귀 광석으로 약귀와 역운을 쫓고 건강과 소원이 성취된다는 영주입니다.', '金剛嶺參은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神秘한 靈驗으로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화를 쫓고 복을 부르는 最高의 영주입니다.', '金剛嶺參은 현재 온도에서 氣와 원적외선 93%가 24시간 방출되는 세계 유일의 神秘의 영주입니다.', '북한에서는 고위층 인사와 일부 스님만이 비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2000°C 불에 넣어도 녹거나 타지 않는 금강석과 같은 영주입니다.', '선물로도 최고! 건강에도 최고!', '신청문의 전화: (02)704-6868',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고 대금 195,000원을 아래 계좌로 입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전국 어느곳이든 신비의 금강령주 SET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국내 독점판매 金剛嶺參社 서울 8호구 안동동 177 14층 B2호'.